

강원상의협의회장 사상 첫 경선?

김대호(춘천)·이해규(원주) 회장 양지구도 양상 ... 내일 선출

3년동안 도내 상공계를 이끌 강원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호 회장



◇이해규 회장

16일 도내 상공회의소(이하 상의)에 따르면 18일 삼척상의에서 제39차 강원상의협의회를 열고 제3대 강원상의협의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선출 방식은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는 추대 형식으로 진행하며, 2명 이상 입후보 되면 도내 상의회장 7명의 투표로 선출된다.

당초 김대호 춘천상의 회장이 추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 이해규 원주상의 회장이 출마의

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양지구도로 굳혀지는 양상이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역 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협의회장을 선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이번 상의협의회장은 침체된 강원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인 만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지역 회장이 최종 단일화에 실패하면 상의 역사상 첫 경선절차를 밟게 된다.

남궁현기자

평창올림픽 스노 경기장 건설 본격화

강원도와 보광은 16일 도청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프리스타일 경기가 열리는 보광 스노 경기장 건설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건설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장을 건설하는 한편 대회가 끝날 때까지 운영 및 관리를 한다.

보광은 경기장 설치에 필요한 터를 제공한다.

경기장 시설 및 부대시설은 10년간 올림픽 유산으로 보전한다.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은 보광이 맡아 관리하고, 도는 10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

강원도-보광, 협력체계 구축
2개종목 18개 세부경기 열려

11월 2개 코스 완공
내년 2월 테스트 이벤트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받고 나서 보광에 넘긴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보광은 테스트 이벤트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 및 운영·관리 등 상호협력체

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경기장 건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광 스노 경기장은 평창 보광휘트니스 파크 70만㎡에 692억원을 들여 대회슬로프 6면을 조성한다.

평행대회전, 슬로프스타일, 믹스, 에어리얼, 하프파이프, 크로스 등의 경기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5일부터 본공사 추진을 위한 벌목 및 이식공사를 진행했으며, 7월 본공사 업체를 선정해 본격 공사에 나선다.

오는 11월 슬로프스타일, 크로스 등 2개 코스를 완공해 2016년 2월 테스트 이

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광 스노 경기장에서는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2종목 18개 세부종목 경기가 열린다.

애초 20개 세부종목이었으나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 남녀 스노보드 평행회전 2개 종목을 제외했다.

최문순 지사는 “보광 스노 경기장은 6개 대회코스에서 2개 종목 1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비중이 큰 경기장”이라며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2106년까지 대회코스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